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audi Arabia helps boosts oil price with fresh output cuts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는 국영 석유기업 Aramco에 오는 6월부터 하루 100만배럴 더 감산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됨. 아람코의 자발적인 추가 감산은 OPEC+ 소속 산유국이 감산 책임을 잘 이행하도록 북돋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도됨. 이에 따라 아람코의 6월 평균 산유량은 하루 750만 배럴 정도가 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Upstream)

해양진흥공사, 해운사에 유동성 공급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해운사의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보도됨. 해운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회사채 매입,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확대, 선박 금융 후순위투자 시행 등 5개 분야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유가와 탱커 운임 간 탈동조화 오래 못가

지난 2개월 동안 유가와 탱커 운임 수입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decoupling 현상이 일어났으나 이런 현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그러나 주요 산유국들이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일부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석유 수요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두산중공업·대한항공, 이번주 경영정상화 방안 윤곽 나오나

당초 시장에서는 두산솔루스와 두산퓨얼셀이 매각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됐음. 다만 두산솔루스의 예상 매각가가 8,000억 원~1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3조 원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계열사로 통하는 두산밥캣과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됨. (이투데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년 교섭 끝에 임단협 마무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사가 3년에 걸친 교섭 끝에 2017년·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5년 삼성에서 한화로의 지분매각 과정에서 노사갈등을 겪으며 그동안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물 경제 위기가 닥치자 '더 이상의 갈등은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도됨. (조선비즈)

FPSOs in mature fields struggle in coronavirus pandemic

FPSO(부유식 생산 저장 및 하역 설비)가 저유가와 COVID-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됨.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유전에서 활동 중인 96기의 FPSO 중 40%가 2020년 적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